

종단 지도력 상징 ‘대중사 특별전형’ 세부규정 마련돼야



임태규 기자의
현장에서
che11@ibulgyo.com

“대중사는 사부대중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인품이나 수행, 종단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중사 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세부적으로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조계종 법계위원회 제34차 회의에 참석해 한 위원 스님의 말이다. 스님의 말에 회의에 동석했던 대다수 법계위원 스님들이 공감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사 특별전형 대상 스님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사 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자격기준, 대중사 예우 조항 마련 등의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하지는 주장이다.

대중사 법계는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서 법계법에 따른 종단 위계서열의 최고 품계로, 원로의원 스님들이나 총림 방장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거나 수행력을 인정받은 스님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우에 맞지 않게 법계법에는 특별전형에 대한 세부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법계법에는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라고 법계가 갖는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대중사 법계에 대한 자격요건을 ‘승납 40년 이상’, ‘종사법계 수지자’로만 명시하고 있고, 대중사 특별전형 절차 역시도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만 있을 뿐이다. 시행령 역시 마찬가지다.

대중사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승으로 존경받는 자리다. 또 조계종 최고 정신적 지도자이자 불법(佛法)의 상징인 종정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단 위계서열 최고 품계인 대중사를 모시는 일에 한치의 미비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계위원 스님들의 지적대로 하루 빨리 특별전형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돼 보다 엄밀하게 대중사들을 예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계사 8주년 남북합동법회 의미

지난 15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된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는 신계사 복원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법회와 같이 100여 명이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2007년 신계사 낙성식에 300여 명이 참가한 이후 8년만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최초로 치러진 민간차원의 남북 공동행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날 법회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해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이날 합동법회는 남북민간교류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회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꾸준히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 앞장섰던 조계종 민주본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민주본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중단된 2010년 5·24 조치 이후에도 합동법회를 비롯해 만해스님 70주기 합동다례제, 북녘어린이 영양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도담도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족통일성 화복에 앞장서왔다.

특히 이번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지성스님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불교 최고위급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총무원장 스님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스님은 이날 만남에서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남북불교계 수장들은 법회 후, 금강산 목란관에서 점심공양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눈데 이어 금강산 구룡연(속류 동산행)을 하는 동안에도 대화의 꽃을 피웠다. 불교교류 활성화와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조불련 위원장 지성스님에게 “남북교류가 좀 더 편안하고 원만하게 이어져야 한다. 남북불교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선불교도련맹이 지난 15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연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에서 남북 불교도 100여명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사진은 법회 후 신계사 앞에서 기념촬영 하는 남북 불교도들.

사찰 낙성식 이후 남북불교 최고위급 인사 법회 이끌어 사회 경제협력 활성화 ‘신호탄’

“보현사 서산대사 추계제향 108산사순례 방북 성사 기대”

함께 상생공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건넸고, 대화에 대해서도 “공존과 상생, 합심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와 통일 의지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묘향산 보현사에서 서산대사 추계제향을 봉행하는 방안과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신계사 성지순례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것도 눈길을 끄는 점이다. 추계제향 봉행은 그동안 서산대사 국가제향의 완전한 복원을 위

해 민주본과 제22교구본사 대중사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조불련 역시 보현사 추계제향 봉행의 취지에 공감했으나 남북 정세와 추가 협의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신계사 방문 역시 지난 2010년 예정됐다가 안타깝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본 본부장 자홍스님은 “올 하반기 북측 인사들에게 서산대사 추계제향을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보자는 제안을 했다. (조불련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남북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마음을 모은 만큼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이 열릴 바란다. 정부 차원에서도 5·24조치를 해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더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주 해자스님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다시 신계사와 보현사, 성불사 등을 순례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남북관계가 회복돼

5·24조치 이후 남북불교 교류

2010년 10월	신계사 복원 3주년 합동법회
2011년 5월	신계사 통일기원 합동법회
2011년 9월	팔만대장경 관각1천년 기념 보현사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2011년 9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평양과 백두산 방문·회담
2011년 10월	신계사 복원4주년 합동법회
2012년 10월	신계사 복원5주년 합동법회
2013년 8월	광복68돌 남북불교도공동발원문 발표
2013년 10월	신계사 복원6주년 합동법회
2014년 6월	신계사서 ‘만해스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제’ 봉행
2014년 10월	신계사 복원7주년 합동법회
2015년 3월	총무원장-조불련 위원장 회담
2015년 8월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2015년 10월	신계사 복원 8주년 합동법회

순례길이 열리면 1000명의 순례단을 이끌고 금강산 땅을 밟고 싶다”고 말했다.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에 동행했던 참가자들도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4년여 간 신계사에 머물며 복원불사 도감을 받았던 제정스님은 “재작년 신계사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기와에 금이 가거나 목재가 갈라져 있어 훼손이 심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보수도 돼 있고 상태도 양호한 편”이라며 “다시 와보니 복원 불사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뿌듯함이 새삼 느껴져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수도 “이날 법회는 북한과 꾸준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등 민간 교류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조계종 민주본의 뜻 깊은 결과물”이라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5일여 앞두고 신계사 합동법회가 먼저 진행된 것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있어 남북불교 교류가 원활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기획/ 인구주택 총조사와 불자들 권리찾기(下)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는 24일 인터넷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10년만에 ‘종교인구’를 조사함에 따라 불교는 물론 각 종교들의 이름이 집중돼 있다. 10년마다 변화하는 종교 지형을 엿볼 수 있는데다가 예산 배정 등 정부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불교계의 중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가 각 종교 관련 예산 배정과 정책 집행 시 종교인구 조사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불자인구가 높다고 나올 경우에는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불교 편협 또는 무시 행위는 자연스레 퇴출될 수도 있는 호기(好機)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상호 문화체육관광부 총무관은 “종교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총무

“인구주택 종교인구 조사 3일 남았다”

“주지 연수·신도 교육 때 적극 알리고 관심 끌어내야”

행정이 바뀐다는 원칙이나 규정은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신경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10일 불자 가운데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정보 부재는 물론 불자들의 인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 중 35.29%는 주변에 동참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4%는 바빠서 이번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

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 보고 있다. 1차적으로 통계청은 물론 종단 차원의 홍보와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전 국민이 아닌 20% 국민만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이 변경되고 1차적으로 인터넷 조사가 먼저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도 불교 인구가 고르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 원인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중시하는 불자들의 책임의식 부재를 손꼽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 변경 문제를 뒤늦게 꼬집기보다 현실적으로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응철 중

앙승가대 교수는 “며칠 남지 않았지만 사찰과 신도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이후에도 종장기적으로 주지 연수나 신도 교육 때 스님과 불자들에게 종교인구조사에 대해 적극 알리고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또한 “흔히 ‘점잖다’로 표현되는 불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불교 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위상은 실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산중총회 소집공고

종헌 제9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일시** : 불기2559(2015)년 11월 13일 금요일(음 10월 2일) 오후 1시
- **장소** :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 **안건** :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총무원
 -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나, 다만 비구나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직 비구나 중 법계, 승량, 연행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0인기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재적승, 재직승, 거주승 자격요건이 강화 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후보자 선출**
 1. **입후보자 자격**
 -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중총회법 제9조제2항, 총무원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이상 총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 말사주지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총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총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인기 이상 성만한
- 강원이나 울릉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경력
-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불기2559(2015)년 11월 1일(일) ~ 11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감칙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총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10월 31일(토) 오후 5시까지 해당 중무직을 시작하여야 함
- 3.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 1부
 - 이력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각 1부
 - 제적등본(단, 출가년도 이후 분기로 인한 독초적 호주승계나 분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경력 또는 안거 증명서류 1부
 - 중법 준수 각서 1부
 - 신원조회서 1부
 - 사진 (반명함판) 3매
- 4. **거주승 신고기간**
불기2559(2015)년 10월 21일(수) ~ 10월 27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5.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불기2559(2015)년 11월 4일(수) ~ 11월 6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6. **입후보자등록·거주승신고·구성원명부열람 장소**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관음사 총무소)
- **문의처** :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전화 : 064-724-6830)

불기2559(2015)년 10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중 호

월정사 부주지 원행(遠行)스님 출판기념법회 초대장

- **일시** _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 3시

귀의삼보하옵고,

- **장소** _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조계사)

울미던 만추의 계절에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월정사 부주지 원행(遠行) 스님의
『10·27불교법난』과
『눈썰 돌리는 소리』,
2권의 산문집이 출간되어
다음과 같이 조출하게
출판기념법회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 죄송하지만 화환은 사양합니다. 법난으로 인하여 열반하신 스님을 위한 추모의 마음과 지금도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계신 스님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만 부탁드립니다.